

“보성~고흥 고압송전선로·변전소 설치 철회하라”

건설 반대 대책위 주민 쫓기대회
“비밀 설명회... 일방적 사업 추진”
한전 “초기 단계... 모든 절차 공개”



보성지역 주민들이 지난 24일 한전이 추진중인 보성-고흥간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 주민들이 보성-고흥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성군 등에 따르면 ‘보성-고흥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송·변전소 반대대책위)는 지난 24일 보성군 득량면사무소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측이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압암리에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주민들과 보성군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송·변전소 반대대책위는 “한전이 임의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 변전소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해 사업을 강행했다”면서 “행정청인 보성군을 배제하고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조권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전라남도에서 의도 크기의 150배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선로와 변전소 사업이 추진 중인 득량면 일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기수갈고동 서식지이고, 오봉산 구들장 채취 현장은 국가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며 “지역 현안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선전규 대책위원장은 “전남에서 태양광 허가가 도내 1위인 고흥에서 생산된 전력을 옮기기 위해 보성군으로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주민 건강을 담보로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하고, 도시 사람들은 전량 생산의 위험성은 책임지지 않고, 전기의 편리함만 누리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로 관련 절차에 따라 주민 대표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외부 인사 등과 사업을 논의하겠다”며 “구체적 사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사업의 윤곽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열어 모든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 녹동~여수 거문도 여객선 쓰리아일랜드호 취항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항을 운항하는 바닷길에 166t급 차도선 ‘쓰리아일랜드호’가 신규 운항을 시작했다. <사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주)삼도해운 소속 ‘쓰리아일랜드호’는 항해속력 13노트의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녹동과 거문도를 1일 1회 왕복 운항한다. 이 배는 여객 146명과 차량 17대를 싣고 편도 4시간 30분간 항해한다.
중전 녹동-거문 항로에는 792톤급 차도선형 여객선인 ‘평화페리11호(평화해운㈜)’가 운항중으로, 이번에 투입된 ‘쓰리아일랜드호’가 기존 기항지에서 여수지역 손죽도를 추가해 운항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 편의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해수정 관계자는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고흥에서 출발해 거문도로 운항하는 여객선이 추가 투입됐다”면서 “주민 및 선사와 소통하면서 거문도 항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고흥군 여성 농어업인 지원 20만원 바우처 카드 발급 개시

고흥군이 2021년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2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상당의 금액을 바우처 카드로 발급해 여성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은 고흥에 주소를 1년 이상(2021년1월1일기준)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 농어업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 및 전업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사업 시행 전전년도 농업 이의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고흥군 사업 대상자는 총 7563명(15억 1300만원)으로 1차 신청에서 7134명을 확정해 발급을 개시했고, 1차 신청에서 누락되거나 추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6월1일부터 15일까지 2차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여성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대상 여성 농어업인이 전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곳에서 전액을 사용하여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지리산에 활짝 핀 멸종위기종 ‘복주머니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복주머니란’(Cypripedium macranthum)이 지난 25일 지리산 특별보호구역에서 만개한 상태로 발견됐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곡성 결혼이주여성 5명 고졸 검정고시 합격

2015년부터 검정 고시반 운영
올해는 코로나로 학원비 지원
곡성군은 결혼이주여성 5명이 2021년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26일 밝혔다.
곡성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자존감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검정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중등 검정고시에서 8명, 2020년 고등 검정고시에서 2명의 합격생을 각각 배출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검정 고시반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여수시 학대피해 아동 센터 개원

보문복지회와 민간 위탁 협약
7명 신체적·정신적 회복 돌봄
여수시는 학대 피해아동이 빠른 시간 내에 상처를 치유하고 학업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건물을 매입해 센터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거쳐 학대피해아동센터를 개원하게 됐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김정숙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시설장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시청에서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